

2010. 4. 28 보 도 용

이 보도자료는 2010년 4월 29일 오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시립미술관 전시과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학 예 부 장	이 수 균	2124-8911
홍 보 과 장	곽 태 수	2124-8912
홍보 담 당 자	이 경 문	2124-8960
담당 큐레이터	최 관 호	2124-8937

제 목 : 제6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보도 의뢰

일자: 2010년 4월 29일

수신: 일간지 미술담당기자

발신: 서울시립미술관/전시과

제목: 제6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보도 의뢰

☐ 전시개요

- 전시제목: 미디어 시티 서울 2010 / Media City Seoul 2010
- 전시주제: 신뢰Trust
- 전시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 등
- 개 막 식: 2010년 9월 6일 오후 5시 (예정)
- 전시기간: 2010년 9월 7일 - 11월 17일 (월요일 휴관)
- 주 최: 서울특별시
- 주 관: 서울시립미술관
- 홈페이지: www.mediacityseoul.org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이어주는 소통의 태도 <신뢰 Trust>

허구란 무엇이며, 역사와 신화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미디어 아트에 대한 또 다른 접근과 시도

제6회 미디어 시티 서울 2010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로서, 세계적인 IT 강국, 첨단 미디어 문화 도시로서의 서울을 자리매김하는 예술행사이다. 본 행사의 로고는 서울시의 지도를 기초로 하여, <미디어> <도시> <서울>을 개별적으로 분리시킴과 동시에 서로를 동등한 위치에 재배치함으로써 그들의 역학관계를 재정립하는 상징적인 이미지이다.

미디어 시티 서울 2010 (김선정 예술 총감독)은 전시주제를 <신뢰 Trust>로 정하고, 21세기 현대 기계문명의 발전과 가능성에 대한 찬사가 아닌, 20세기 초 미디어의 출현과 함께, 오늘날 현대사회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자 한다. <신뢰 TRUST>는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소통체계이며, 타인에 대한 믿음과 의심의 여지를 모순적으로 아우른다. 개인이 사회와 관계하는 하나의 태도, <신뢰Trust>를 통해 현대사회의 환경으로 존재하는 미디어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행사의 주제 <신뢰 Trust>를 통해 구체적으로 미디어의 기술적이고 학구적인 이론을 제시하기 보다는 대중과 함께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환경으로서의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폭넓은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본 행사는 전시 총감독인 김선정(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과 3명의 큐레이터(클라라 킴, 니콜라우스 샤프하우젠, 후미히코 수미토모)가 함께 전시기획을 하였다.

현재까지 확정된 대표적인 작가는 블라스트 피오리, 실파 굽타, 캐서린 오피, 티노 세갈,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등 40여명의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작가들이 본 행사에 참여한다. 작가들은 미디어의 다양한 요소들을 작품에 활용하며, 인쇄물, 도시 폐기물, 사진과 비디오의 기술적 요소, 다큐멘터리와 픽션적 형식들을 차용하고 재조합 하여, 관객들에게 일련의 허구적인 상황을 암시함과 동시에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열어줄 것이다.

미디어 시티 서울 2010은 2009년 12월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국제 심포지엄 <미디어 아트에 관한 병렬적 시선들 (Parallel Visions on Media Art)>이 개최하였다. 지난 3월 15일부터 20일에 걸쳐 제 2차 큐레이터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미디어 시티 서울 2010의 주제를 결정하고, 본 전시에 소개될 참여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였다. 다가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제 3차 큐레이터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서울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펼쳐질 공공 프로젝트와 본전시 외의 행사내용이 확정 될 예정이다.

□ 대표작가 작품 이미지

(1) 블라스트 피어리



<Ulrike and Eamon Compliant>

(2) 실파 굽타



<Singing Cloud>

(3) 캐서린 오피



<Untitled #1 (Inauguration Portrait)>

(4)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Unknown Forces>



MediaCity Seoul
2010
TRUST

* 첨부: 1. 전시개요

2. 작가 및 작품집

3. 로고이미지 (다운로드 <http://dumir.webhard.co.kr> / ID_dumir2 / PW_1234)

[첨부1] 전시개요

□ 미디어 시티 서울 2010 Media City Seoul 2010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는 2000년에 시작되어 격년제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하는 서울의 유일한 국제 비엔날레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변화되고 있는 동시대미술의 양상을 세계 각국의 미디어아트를 통해 제시하고, 세계적인 IT 강국, 첨단 미디어 문화 도시로서의 서울시를 자리매김하는 예술 행사로 이어져 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제6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는 지난 10년간의 비엔날레 전시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자, 기존의 행사명인 <미디어 시티 서울 media_city seoul>을 <미디어 시티 서울 Media City Seoul>로 변경하고 새로운 로고를 제시한다. 이는 미디어, 도시, 서울을 개별적으로 분리시킴과 동시에 서로를 동등한 위치에 재배치함으로써 그들의 역학관계를 재정립 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태도이다. 새로운 로고는 서울시의 지도를 기초로 하여 RGB 채널의 기본색(빨강, 녹색, 파랑)을 미디어 시티 서울의 행사 수만큼 반복한 이미지이다. 미디어 시티 서울 2010은 미디어에 대한 고정된 관념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좀 더 폭넓은 의미의 미디어의 세계로 접근하고자 한다.

□ 전시주제 <신뢰Trust>

미디어 시티 서울 2010 (김 선정 예술 총감독)은 전시주제를 <신뢰Trust>로 정하고, 21세기 현대 기계문명의 발전과 가능성에 대한 찬사가 아닌, 20세기 초 미디어의 출현과 함께, 오늘날 현대사회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자 한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언급되고 조작되고 변질되어 그 현실적 자리를 허구에 내어주었다. 현실과 허구의 간극이 무의미해진 현대사회에서 과연 공동체란 무엇이며, 그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사회와 소통하는 인식체계는 어떻게 재정의 되어야 하는가.

전시 주제 <신뢰Trust>는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소통체계이며, 타인에 대한 믿음과 의심의 여지를 모순적으로 아우른다. 이러한 관계는 개인과 공동체가 만나는 사회적 구조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미디어가 사회적 구조에 개입하면서 스스로의 유통구조를 더욱 집중적이고 권위적으로 확장시키기 때문이다. 미디어의 확장된 형태는 정보를 왜곡하고, 메시지를 불투명하게 하며, 대중으로 하여금 마케팅 전략에 익숙해지게 한다. 대중은 군중 속에서 일상적인 고독감에서 벗어나기 힘들며, 사회가 제시하는 민주주의는 대중주의와 그 차이를 구별하기 힘들어졌다.

미디어 시티 서울 2010은 <신뢰Trust>를 개인이 사회와 관계하는 일련의 태도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미디어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고자 한다. 미디어의 보급은 개인으로 하여금 미디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으며, 실제로 현대인은 일상생활에서 미디어와 분리되어 단 하루도 생활할 수 없다. 개인은 미디어의 크고 작은 커뮤니티들에 참가하면서 사회정치적 담론들을 공유하고 발언하며, 더 나아가 대안의 커뮤니티를 스스로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러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제시하며, 과연 우리는 현대사회의 구조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커뮤니티를 꿈꾸는가.

미디어 시티 서울 2010은 <신뢰Trust>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정치적 이념을 시사하고자 하지 않으며, 미디어의 기술적이고 학구적인 이론을 제시하고자 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폭넓은 의미를 좀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좀 더 개인적인 시각에서 현대사회의 트라우마를 공유하고자 한다.

□ 큐레이터

예술총감독: **김선정**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큐레이터: **클라라 김** (Clara KIM)

-레드캣 갤러리(REDCAT Gallery디렉터)

니콜라우스 샤프하우젠(Nicolaus SCHAFHAUSEN)

-비트 드 비드(Wittede With, Center for Contemporary art in Rotterdam디렉터)

후미히코 수미토모(Fumihiko SUMITOMO)

-아트 이니티에이티브 도쿄(Arts Initiative Tokyo) 큐레이터)

□ 참여작가

미디어 시티 서울 2010은 세계 20여 개국에서 40여명의 작가들을 초청한다. 참여작가 대부분은 미디어 작가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디어의 다양한 요소들을 작품에 활용한다. 그들은 인쇄물, 도시 폐기물, 사진과 비디오의 기술적 요소, 다큐멘터리와 픽션적 형식들을 차용하고 재조합 하여, 관객들에게 일련의 허구적인 상황을 암시함과 동시에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열어줄 것이다. 전시 주제 <신뢰Trust>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사회를 구조적으로 재정립하듯이, 참여 작가들은 허구란 무엇이며, 역사와 신화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그리고, 현대인들이 겪는 공공의 경험은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다양하게 재현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 작가리스트 (현재 확정된 작가이며, 6월에 전체리스트가 발표될 예정임):

타렉 아투이, 야엘 박타나, 블라스트 띠오리, 마크 브래드포드, 아브라함 크루즈빌레가스, 마논 더 부르, 빌렘 드 루이, 지미 덜햄, 실파 굽타, 이즈미 타로, 아드리아 줄리아, 김성환, 고이즈미 메이로, 미키 크래츠만, 임민욱, 사라 모리스, 데이만타스 나르케비치우스, 캐서린 오피, 박찬경, 왈리드 라드, 주디 라둘, 이주요,티노 세갈, 알란 세쿨라, 나스린 타바타바이 &바박 아프라시아비, 에릭 반 리스하우트,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시징맨 (첸 샤오시웅, 김홍석, 오자와 츠요시), 양아치

Tarek ATOUI, Yael BARTANA, Blast Theory, Mark BRADFORD, Abraham CRUZVILLEGAS, Manon DE BOER, Willem DE ROOIJ, Jimmie DURHAM, Shilpa GUPTA, IZUMI Taro, Adria JULIA, Sung Hwan KIM, KOIZUMI Meiro, Miki KRATSMAN, Minouk LIM, Sarah MORRIS, Deimantas NARKEVICIUS, Catherine OPIE, PARK Chan-Kyong, Walid

RAAD, Judy RADUL, Jewyo RHIL, Tino SEHGAL, Allan SEKULA, Nasrin TABATABAI & Babak AFRASSIABI, Erik VAN LIESHOUT, Apichatpong WEERASETHAKUL, Xijing Men (CHEN Shaoxing, Gimhongsok, Tsuyoshi OZAWA), Yangachi

미디어 시티 서울 2010은 2009년 12월 8일 과 9일 양일에 걸쳐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국제 심포지엄<미디어 아트에 관한 병렬적 시선들 (Parallel Visions on Media Art)>이 개최되었고, 총감독과 세 명의 공동큐레이터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미디어 시티 서울을 구상하며”(김선정), “모털리티”(니콜라우스 샤프하우젠), “예술과 미술에 있어서의 창의성”(후미히코 수미토모), “상상의 커뮤니티들”(클라라 킴)이라는 발제문으로 동시대 미디어 아트의 전개에 대한 각자의 의견과 올해 비엔날레에 대한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제 2차 큐레이터 회의가 지난 3월 15일부터 20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미디어 시티 서울 2010의 주제 <신뢰Trust>를 결정하였고, 본 전시에 소개될 참여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였다. 다가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제 3차 큐레이터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서울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펼쳐질 공공 프로젝트와 본전시외의 행사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 미디어 시티 서울 2010 로고이미지



MediaCity Seoul
2010
TRUST

* 고해상도 이미지가 필요할 경우 별도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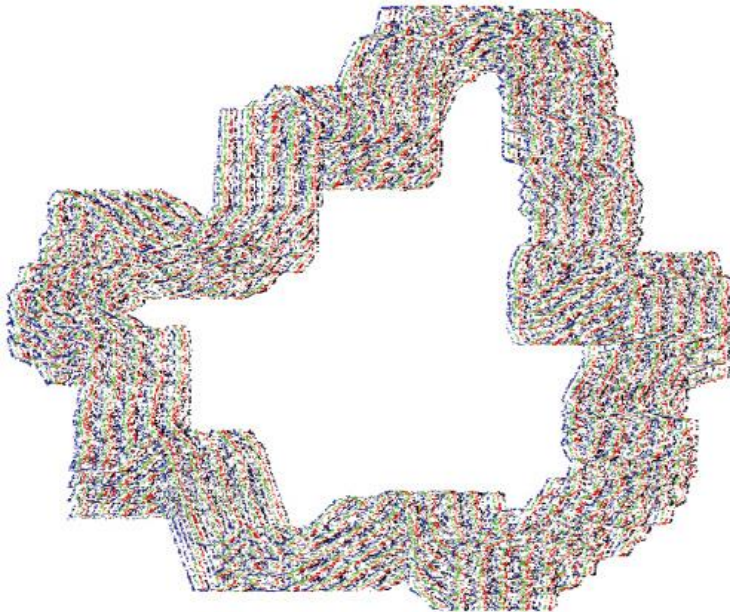
(담당자: 이유진 02-2124-8944 / jjin120@nate.com)

[첨부2]

제6회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Media City Seoul 2010]

작 품 집

2010. 05



서울시립미술관 1층

참고이미지 "This Is So Contemporary"



작가명: 티노 세갈 Tino Sehgal

작품명 :이것은 새롭다 This is New, 2003

작품형태: 관람객 참여 퍼포먼스

작품설명: 미술관의 입구에서는 관객이 입장권을 내는 순간 전 시장 지킴이가 그날의 톱 뉴스 제목을 낭독하고, 이에 대해 관객이 대답하면, 지킴이가 "This is new, 2003"라고 대답하면서 작품을 완성한다. 티노 세갈은 퍼포머에 의한 움직임과 언어, 노래의 반복 그리고 관람객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요청하는 새로운 형식의 작품을 제시함으로써 비물질화 작업을 시도한다.



작가명: 임민욱 Minouk Lim

작품명: S.O.S-채택된 불화 S.O.S-Adoptive Dissensus, 2009

작품형태: 싱글 채널 비디오, 44분

작품설명: 2009년 3월 어느 밤에 한강 유람선을 타고 진행된 퍼포먼스를 싱글 채널 비디오 버전으로 기록한 작품이다. 44분간의 비디오를 통해 관객은 오랜 세월 한강의 공식적, 비공식적 역사들의 산증인인 유람선 선장의 안내멘트를 따라 여행하게 된다.

참고이미지 "In the room 3"



작가명: 김성환 Sung Hwan Kin

작품명: 미정, 2010

작품형태: 비디오/오디오 설치작

작품설명: 뉴욕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작가 김성환은 미디어시티서울을 위해 새롭게 제작할 신작을 발표했다. 그의 이전 퍼포먼스 작업들의 연장선 상에서, 이민과 부동산 개발사업, 개척자 역사에 있어 암스테르담과 뉴욕의 관계, 점성술과 신체, 시와 산문 등을 다루는 비디오/설치작이 선보일 예정이다.



작가명: 야엘 박타나 Yael Bartana

작품명: 악몽 Mary Koszmary (Nightmares), 2007

작품형태: 싱글 채널 비디오, 10분 50초

작품설명: 유럽인, 폴란드인, 그리고 유대인의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관계를 탐구한 영상작업이다. 폴란드 좌파 Stawomir Sierakowski는 바르샤바의 빈 스타디움 안에서 폴란드로 돌아온 3백만의 유대인들을 향해 선동적인 독백을 펼친다. 제 2차 세계대전의 프로파간다 영화의 구조와 감각을 차용하여, 역사적인 질문들을 던진다.

서울시립미술관 1층

작가명: 야엘 박타나 Yael Bartana

작품명: 담과 탑 Mur i Wieża (Wall and Tower), 2009

작품형태: 싱글 채널 비디오, 13분

작품설명: <악몽>(2007) 삼부작의 첫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유대인 전통 복장을 하고 바르샤바로 돌아온 젊은이들은 경쾌하게 팔레스타인 지대의 30개 유대 식민지들에 의해 새로운 정착지를 짓는다. 조망탑에는 다비드의 별과 폴란드 독수리가 결합된 핏빛의 기가 세워진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영웅적 이미지들과 함께 시온리스트 드림이 암시된다.

작가명 빌렘 드 루이(Willem de Rooij)

작품명 <부케 Bouquet>, 2010

작품형태(영상물, 설치물, 표현 기법 등) 설치

작품설명

작가명 빌렘 드 루이(Willem de Rooij)

작품명 <오렌지 Orange> 2004

작품형태(영상물, 설치물, 표현 기법 등) 설치

작품설명

이 작품은 81개의 모노크롬 슬라이드가 지속적으로 바뀌면서 전시장의 흰 벽에 색면을 보여주는 작업.

작가명 주디 라둘 (Judy Radul)

작품명 <월드 리허설 코트 World Rehearsal Court> 2009/2010

작품형태(영상물, 설치물, 표현 기법 등) 7채널 비디오 설치

작품설명

이전에 가정법원 건물이었던 서울시립미술관의 장소성을 바탕으로 법원 현장을 7개의 모니터로 재현하고 있는 작업.



작가명 사라 모리스 (Sarah Morris)

작품명 <베이징 Beijing> 2008

작품형태(영상물, 설치물, 표현 기법 등) 싱글 채널 비디오

작품설명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소재로 한 총 86분 길이의 영상 작업이다. 렘 쿨하스가 지은 거대한 규모의 올림픽 경기장 건물과 그 안의 인물들을 비추면서, 과연 이러한 스펙터클을 창조하는 주체가 누구인지(authorship)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작가명: 고이즈미 메이로 KOIZUMI Meori

작품명: Portrait of a Young Samurai

작품형태: 영상

작품설명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단상을 사무라이와 문화와 연결해 현재 일본의 젊은 세대의 고민과 사회의 문제를 영상으로 표출



작가명 PARK Chan-Kyong

작품명 신도안

작품형태 다큐멘터리

작품설명

충남 계룡산 신도안에서 흥망사를 담은 작품. 신도안. 계룡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분지로, <정감록>을 통해 조선왕조 이후 신도음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면서 이상사회의 터전으로 받아들여졌고, 일제시대 이래 각종 신종교와 무속신앙의 집성지가 됐다.

박찬경의 <신도안>은 바로 현대인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그 공간을 조명한다. <블랙박스: 냉전 이미지의 기억> <세트> <파워통로> 등으로 미술과 영화의 접점에 선 작품들을 꾸준히 발표해왔으며 박찬욱 감독의 동생이기도 한 박찬경은 미신으로 폐기처분됐던 '계룡산 문화'를 다큐멘터리와 실험영화가 혼합된 방식으로 그려내고 있다.



작가명 Nasrin TABATABAI & Babak AFRASSIABI

작품명 UFI Project: Satellite Geography: as long as it is aiming at the sk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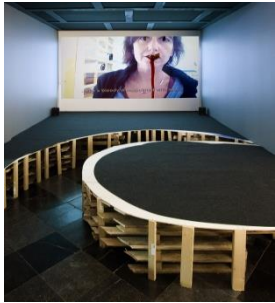
제작년도 2008

작품형태: Single channel video

작품설명

최근의 비디오 프로젝트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이란 텔레비전 방송국에 관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완성되면 지역적 공동 사회의 정체성과 정치에 관한 텔레비주얼 중개와 제작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 작가들은 국제적으로 페르시아어로 된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20개의 위성 텔레비전 방송국의 대표자 들과 만났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청취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이란 내에 거주하고있다. 프로젝트를 통해 작가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얻게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이란의 안과 밖에 살고 있는 모든 시청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중의 지형학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 준다. 여기서 이중이란 여기와 저기, 지금과 다음, 현재와 미래와 같은 양면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서울시립미술관 2층



작가명 에릭 반 리스하우트 (Erik Van Lieshout)

작품명 <섹스 이즈 센티멘탈 Sex Is Sentimental> 2009

작품형태(영상물, 설치물, 표현 기법 등)

작품설명



작가명: 양아치

작품명: 감시 드라마

작품형태: 영상, 퍼포먼스

작품설명

현대 도시에 산재한 감시 카메라 시스템에 대한 풍자. 각종 영화의 장면을 감시 카메라 앞에서 재현하고 녹화된 필름을 상영



작가명 : 이즈미 타로 IZUMI Taro

작품명: Hang Meat

작품형태: 오브제 인스톨레이션, 영상설치

작품설명

일본의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감수성을 저자본이 투여된 삶의 재료를 사용해 흥미롭게 표출.



작가명 Catherine OPIE

작품명: Untitled #1 (Inauguration Portrait)

작품형태: 사진

작품설명

캐서린 오피의 "취임식" 연작은 지속적인 작가의 이전 작업과 유사한 방식의 다큐멘터리 사진 작업과 실험적이며 역사적인 순간의 장면을 담은 버락 오바마의 취임식 장면을 담은 작품이다. 이 작품들은 미국의 역사의 한 순간을 담은 것이며, 영광스러운 날의 한 장면을 찍어낸 것이지만, 다른 매체가 잡아내지 못한 그날의 가려진 어두운 혹은 냉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명: Abraham CRUZVILLEGAS

작품명: Autoconstrucción-London Suite, United Kingdom

제작년도: 2007

작품형태: 나무, 유리병, 끈 등 설치작품

작품설명

런던의 Edmund Waller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학교 주변에서 수집한 다양한 재료로 구성된 작품. 미디어 시티 서울 2010에서도 이와같은 방식을 통해 서울에서 수집한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설치작품을 보여줄 예정



작가명 Walid RAAD

작품명 The Atlas Group

작품형태: Video Installation, Photography

작품설명

왈리드 라드는 레바논에서 자랐고 현재 작품활동은 미국에서 진행 중이다. 그의 작품은, 아랍 - 이스라엘 분쟁,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이론과 실제 텍스트 분석, 비디오와 사진 프로젝트, 그리고 레바논 시민 전쟁에 집중되어 있다. 그의 비디오 작업은 "아틀라스 그룹"의 이름으로 진행중이며, 죽음이나 전쟁에 대한 무거움을 작가만의 시각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의 사진 프로젝트는 이후 내전 베이루트 베이루트 아카이브로 지속적인 다큐멘터리 사진 프로젝트를 포함합니다.

왈리드 또한 아랍 이미지 재단의 회원이며 1996 년 아랍 세계의 시각 문화의 역사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시작 영역에서 실험 비디오 제작을 추진 중에 있다.



작가명 Allan SEKULA

작품명 Polonia and Other Fables

작품형태 사진

작품설명

폴란드 이민자들과 다른 이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시카고의 부유한 노동자들의 역사와 중요한 관련이 있는 폴란드 이민자들을 통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비판적으로 기록하고 검토한다. 세쿨라의 사진에 대한 이론과 작업을 검토하는 것은 노동자 역사와 경제에 관한 그의 연구만큼 중요



작가명 Apichatpong WEERASETHAKUL

작품명: Unknown Forces

작품형태: 4 channel Video

작품설명

주로 영화와 사진으로 작업하는 작가로 작품은 픽션과 현실 사이의 경계를 흐리면서 다양한 도시와 도시 이전의 공간들에 관해 탐구한다. 기억, 저항, 전치, 생존 그리고 부식과 같은 개념들을 다루면서,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환경 내에서 개인의 주체성에 관한 생각들을 표현한다.

네 개의 채널로 구성된 최근 비디오 설치작업 Unknown Forces는 정치, 군주제 그리고 종교의 부자연스러운 조합으로 현재 태국 내의 혼란스러운 삶을 반영한다. 이 작품을 2006년 정치적 소용돌이와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는 그의 인상적인 코미디 작품으로 술에 취한 행복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며, 그의 나라와 태국인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작가명 Adrià JULIÀ

작품명 Notes on the Missing Oh

작품형태 Three channel Video installation

작품설명

개인 기억과 집단의 기억을 드러내고 '집'이란 메타포를 통해 재해석한 신작으로 1982제작된 영화 '인천'의 제작과 상영 이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당시 제작자와 출연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한 영상물과 실제 필름을 함께 설치한다. 주인 없는 필름 『인천』을 관리하고 있는 영화사 직원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영화 촬영 시 참여했던 한국의 스태프 및 배우들을 찾아내어 인터뷰.

영화에 대한 개개인의 기억을 되살리고, 불분명하고 주관적인 개인의 기억을 기반으로 실제 촬영했던 장소를 쫓으며 '인천'을 재구성

서울시립미술관 3층



작가명: 실파 굽타 Shilpa Gupta

작품명: 노래하는 구름 Singing Cloud, 2008-9

작품형태: 사운드 설치 작업 (수 천 개의 마이크, 48 멀티 채널 오디오 작업, 오디오: 9분 30초, 457x61x152 cm)

작품소개: 수천 개의 마이크로 만들어진 구름 형태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작품으로, 역사의 대립, 깊은 욕망과 미결의 기억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나타낸 작품이다.



작가명: 실파 굽타 Shilpa Gupta

작품명: 무제 Untitled, 2008-09

작품형태: 모션 플랩보드(Motion Flap board) 설치작, 1.5 미터

작품소개: 계속 바뀌면서 새로운 문구들을 만들어내는 신호판인 플랩보드 형식을 활용한 설치작업이다. 정류장, 플랫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을 연상시키는 본 작업은 신호판의 문구가 단지 수 초 동안 나타났다가 금세 다음 번 문구로 교체되면서 시각적, 심리적 놀이를 만들어내는 듯 하다.

"Xijing Olympics"



작가명: 시징맨 Xijing Men

작품명: Chapter 1, 2: 시징극, 3: 시징 올림픽, 4: 시징의 일상적 대통령

작품형태: 영상, 오브제, 가구, 무대 등으로 이루어진 설치작업

작품설명: 시징맨은 중국의 첸 샤오시웅(Chen Shaoxiong), 한국의 김홍석, 일본의 오자와 츠요시(Ozawa Tsuyoshi), 세 작가가 결성한 국제적 협력그룹이다. 2007년부터 진행해온 '서경'이란 가상의 도시에 대한 네 개의 프로젝트를 챕터별로 함께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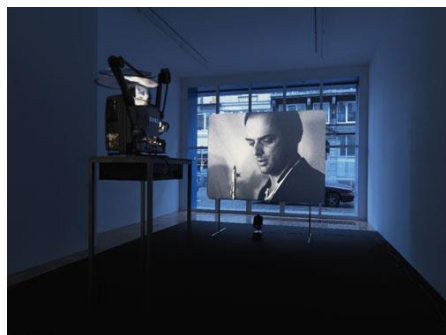


작가명: 데이만타스 나르케치비우스 Deimantas Narkevičius

작품명: 더 헤드 The Head

작품형태: 35mm 필름에서 싱글 채널 비디오 변환, 12분

작품설명: 리투아니아 사회의 급속한 변화를 다루는 작품을 제작해온 작가는, 기록자료, 인터뷰, 영상자료, 애니메이션, 사진, 애니메이션, 재현 등을 활용한 영상작업을 통해 다큐멘터리의 형식적 한계에 도전한다. <더 헤드>에서는 전후에 강독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커플들, 장래희망에 대한 아이들과의 인터뷰, 50년대 소비에트 모뉴먼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결합시킨다.



작가명: 마농 더 부르 Manon de Boer

작품명: 아티카 Attica, 2008

작품형태: 16mm 필름, 10분

작품설명: “아티카”라는 제목은 뉴욕의 한 교도서에서의 폭동에 영감을 받은 작곡가 프레데릭 리에스키(Frederic Riewski)의 곡명에서 따온 것이다. 카메라는 느리게 원형으로 움직여 나가며 음악가들이 즉흥적 테마를 연주하는 모습을 잡아낸다. 작품은 감옥 생활의 끊임없는 반복과 탈출의 불가능성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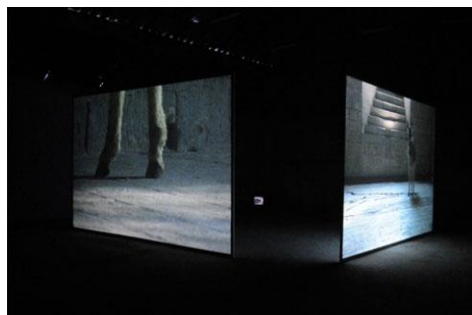


작가명: 이주요 Jewyo Rhii

작품명: 한강에 누워 Lie in the Han River, 2005-06

작품형태: 영상, 오브제, 드로잉들이 결합된 설치작품

작품소개: 돈을 벌지 않는 남녀가 한강에서 만나 데이트를 하다 추위가 닥치자 갈 곳이 없어 헤어지는 내용의 비디오와 드로잉 작업이다. 작가는 이들을 위해 한강의 버려진 곳에 은밀한 공간을 꾸며냈다. 키스를 할 수 있게 후미진 공중전화 부스에 세운 스티로폼 가림막, 몸을 녹일 수 있게 촛불로 강통이나 돌 데우기 등 소박한 장치들이 유머러스하면서도 사랑스럽다.



작가명 더글라스 고든 (Douglas Gordon)

작품명 <내 당나귀들과의 고역 Travail with My Donkeys> 2008

작품형태 (영상물, 설치물, 표현 기법 등)
2채널 비디오 설치작품

작품설명

이 작품은 고든이 2008년 프랑스 아비뇽에 방문하면서 그 도시의 중세역사와 고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다. 그는 성서와 동화에 자주 등장하는 당나귀라는 동물을 통해 선과 악이라는 이중성이라는 모티브를 재현해내고 있다.



작가명 미키 그래츠만 (Miki Krats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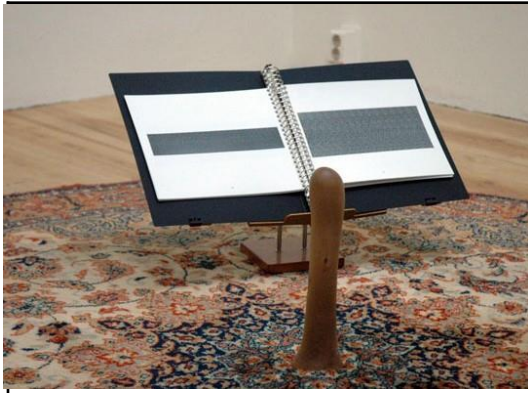
작품명 <타겟티드 킬링 Targeted Killing> 2010

작품형태(영상물, 설치물, 표현 기법 등) 사진

작품설명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로 제작된 이 시리즈는 총 10개의 흑백사진 작품으로 구성되어있다. 작가는 현재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주요 팔레스타인 분쟁지역을 찾아 다니며 그곳의 건조한 풍경을 다큐멘터리 사진으로 담아낸다.

서울시립미술관 3층



작가명 : 타카미네 타다수 TAKAMINE Tadasu

작품명: 퍼블리싱 프로젝트

작품형태: 서적 제작 후 이를 전시

작품설명

한국과 일본의 국가 정체성과 그 안에서 영향을 받는 개인의 삶을 한국과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은 작가의 개인사와 연결해 서적으로 제작, 전시.



작가명 Mark BRADFORD

작품명 Helter-skelter

제작년도: 2009

작품형태: 포스터, 광고물 콜라주

작품설명:

장소미정

	작가명 론 테라다 (Ron Terada) 작품명 <Stay Away from Lonely Places> 2005 작품형태(영상물, 설치물, 표현 기법 등) 네온 설치 작품설명
작품 이미지 	작가명 : 던컨 스피크맨 DUNCAN SPEAKMAN 작품명 : As if it were the last time 작품형태: 퍼블릭 프로젝트 작품설명 개인들이 각자 웹 상에서 음악과 지도를 다운받아 작가가 지시한 곳에 모여 음악을 귀에 꽂아 들으며 환경을 경험
	작가명 Jimmie DURHAM 작품명 The Pursue of Happines 제작년도: 2003 작품형태: Flim, 13min 작품설명 젊은 인도남자가 주인공인 13분짜리의 짧은 영화로 영화 속 주인공은 비닐봉지를 가지고 사막에 있는 이것저것 주워 넣고 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봉지 속에 있던 무언가 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것이 영화의 내용이다. 작가는 자전적인 필름인가에 대한 관객의 질문에 "나와는 관계가 전혀 없으며, 영화 속에 나오는 작품은 줄리앙 슈나벨과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인터뷰 내용을 통해 전했다.

장소미정

	작가명 : 블라스트 띠오리 Blast Theory 작품명 : Ulrike and Eamon Compliant 작품형태 : 도시를 걸으면서 핸드폰을 통해 지령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는 인터랙티브 작업 작품설명 60년대 유럽의 악명높은 두 테러리스트인 울리케와 아이몬의 삶을 관객이 간접 체험하며 개인의 삶과 사회적 정의의 관계에 대해 재고해 보는 기회를 마련
	작가명 지아드 안타 (Ziad Antar) 작품명 미정 작품형태(영상물, 설치물, 표현 기법 등) 싱글 채널 비디오 작품설명(간단)
	작가명 토비아스 지에로니 (Tobias Zielony) 작품명 미정 작품형태(영상물, 설치물, 표현 기법 등) 싱글 채널 비디오 작품설명(간단)

야외



작가명: 타렉 아투이 Tarek Atoui

작품명: 언-드럼/노이즈 생존의 전략들 Un-drum/strategies of surviving noise, 2009

작품형태: 사운드 퍼포먼스

작품설명: 사운드 퍼포머이자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타렉 아투이는 레바논 출생으로, 현재 암스테르담의 STEIM 스튜디오에서 공동예술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작가는 본인이 프로그래밍한 전자-어쿠스틱 음악 공연을 경희궁 야외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참고 이미지 "A. intermission"



작가명: 장민승 + 정재일 Jang min-sung + Jung Jae-il

작품명: Timeless, 2010

작품형태: 사운드 설치작품

작품소개: 경희궁 내 자정전과 태녕전 주변의 공간에 기반을 둔 장소특정적 사운드 설치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경희궁의 건축, 역사, 자연, 앰비언트 등을 영감의 원천으로 음악 설치 작업은 경희궁 내를 또 다른 환경으로 변모시키게 된다.

참고 이미지



작가명: 김순기

작품명: 과거와 현재 Past and Present

작품형태: 야외 사운드 설치 작품

작품설명: 프랑스에서 활동중인 작가 김순기는 서울역사박물관 뒷 마당의 우물과 물길을 활용한 사운드 설치 작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바탕으로 사운드와 물의 요소와 결합하여 신명 나는 소리판이 역사박물관을 감싸게 된다.

작가명: 칸디스 브라이츠 Candice Breitz

작품명: 노동자 영웅 (존 레논의 초상) Working Class Hero (A Portrait of John Lennon), 2006

작품형태: 25채널 영상 설치 작업, 39분 55초

작품설명: 존 레논의 팬 25명의 그의 첫 번째 솔로 앨범 "John Lennon/Plastic Ono Band"(1970)을 동시에 부른다. 작품 속에서 존 레논의 모습은 한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각각의 스타는 그를 숭배하는 팬들의 집단적인 욕망과 판타지가 반영되는 거울로서 제시된다.

작가명 줌펫 (Jompet)

작품명 <자바의 기계 Java's Machine>

작품형태(영상물, 설치물, 표현 기법 등) 설치

작품설명

인도네시아 출신의 젊은 작가로, 현재 요기야카르타에서 거주, 활동하면서 퍼포먼스와 영상, 설치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는 전자 악기나 카메라, 매우 로우-테크한 느낌의 컴퓨터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사회 속에서의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에 대해 얘기한다.